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b>대게직거래장터</b>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좋아! 청초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엠</b>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b>내피알</b>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차의 오리발 배후도 쫓아낸 듯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최순실이 귀국 전에 수사에 대비한 지침을 내리는 것인데요. 고영태에게 모든 잘못을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덮어씌우라고 했습니다. 즉 위증하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말에서 다 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지침이 고영태에게만 간 것은 아니겠지요? 범죄 일당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도 엄히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구속 초기에 최순실이 곰탕 식사를 했다는 소식, "나의 일로 대통령직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발언, 아무래도 수상하지요? 신호 같습니다.

어제 2부에서 소개해드린 jtbc 보도는 박근혜가 뇌물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박근혜가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해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이 허울만 사라진다면 그는 재판정에서 호통을 듣고 호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범피자들이 말을 맞춰 진실과 법과 재판을 기만하려 들 때 사법기관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특검은 조속히 박근혜에 대한 체포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헌재는 조속히 무자격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국정을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견 연인원 천만 촛불 민심은 기본이고 234명의 대의자를 통한 5천만 국민 다수의 뜻입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15일(목) 1부 | 박근혜, 직권남용 뇌물 또 확인  
 ...현재 시간 끝 필요 없어

[오프닝] 최순실의 거짓 증언 지시...박근혜는 안 받았을까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박근혜 "CJ 손경식 이미경 날려야"에 조원동 실행 옮겨  
 -탄핵 심판 준비 이끌 재판관은 이정미...일찍 결론 내릴 듯  
 -대선 전 얼굴 확 고쳐·차, 취임 뒤에도 주기적 시술한 듯  
 [뉴스듣기능력평가] 박근혜의 외장하드는 최순실 머리?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트럼프, 에너지부 폐지 주장한 자를 에너지장관 지명

-MB의 트럼프 칭찬..."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걸 기대"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유일호 부총리 8개월 만에 "일하겠다" 선언

-유일호식 재정정책 기대할 게 있나...적극적 분배여야 답

[공화국 논평] 재직 중 비밀 공개 靑 조리장에 대한 조치

가능성 높아지는 탄핵 인용

## 국민일보 “이미경 아웃” 박근혜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7월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을 불러 “CJ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CJ 회장과 이미경 CJ 부회장은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CJ가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희화하는 프로그램 즉 SNL코리아를 방영하고,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을 제작 검토한 것이 노여움을 산 것으로 봤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와 만남을 통해 VIP의 뜻이라며 두 사람은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보도, 박근혜 직권남용 확인됐다.

## 국민일보 3월 13일 전에 탄핵 결정될 듯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어 갈 재판관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변론을 이끌게 된 것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

## 중앙일보 “관저·경호·의무실 강제수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관저 및 경호실, 의무실 등을 강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실 업무일지를 확보해야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의무실은 의약품 구매와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권부 1번지이니 이거 쉽게 조작할 수는 없겠지만 예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 매일경제 김기춘 출국금지, 구속수사할 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출국 금지됐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특별검사팀은 김기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도 무거 있게 거론했다고 한다.

복마전 청와대

## 한국일보 차, 2009년부터 미용시술 받은 듯

한 피부과 원장은 2014년 5월 13일 피명이 든 대통령 박근혜의 사진을 보고 “필러시술을 받은 지 3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에게 미용시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도 청문회에서 “필러 시술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들은 시술을 받지 않으면 외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해선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박근혜의 얼굴 사진을 체크해봤다. 그 결과 박근혜는 2009년 경부터 최근까지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조차 몰랐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박근혜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겨레 사설 소개한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고도 국정이 제대로 운영됐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이 ‘사생활’일 수 없다. 그날 행적을 밝히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다.” 박재홍 CBS 아나운서는 “2014년 4월 16일만 참사가 아니라 4년 내내 참사였다”라고 일갈했다.

비선 국정농단

## 국민일보 최순실이 설계하고 김종 수금

최순실은 지난해 장시호를 앞세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했다. 이어서 7월 최순실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할 곳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만나 “BH 관심사”라고 압박하며 수금원 노릇을 했다. 한편 지난해 7월은 대통령 박근혜가 7개 기업 회장을 독대했던 시기다.

## 경향신문 7년 전 崔 범죄 막을 수 있었다

2009년 대통령 박근혜는 매제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을 불러 박근혜와의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이후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가 연락을 단절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법원도 최순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가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순실 조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MBC 수뇌부, 정윤희 아들 특혜

MBC 수뇌부가 정윤희의 아들인 배우 정우식 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도록 제작진에 여러 차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식 씨는 누구냐? 정윤희가 최순실과 결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특히 정우식 씨가 조연으로 출연했던 드라마 '육중화'의 경우 해당 배역을 맡기 위해서 100명 넘는 연기자들이 오디션을 봤다고 한다. 정우식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다.

## 한겨레 삼성, 정유라에 440억 줬다

삼성과 코레스포츠키가 맺은 계약서가 드러나며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액수가 드러났다. 애초 삼성이 약속한 금액은 220억 원이었지만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도 204억 원을 출연했다. 또한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한 돈도 16억 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돈만 440억 원이다. 이 돈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한 직후부터 최순실 일가에게 넘어간다. 한겨레 보도, SK 말고도 삼성의 민원을 들어주며 뒷돈 챙긴 거 또 인증이다.

## 세계일보 "비선 건드리면 너희도 골로 가"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희 문건'을 보도하면서 가졌던 인터뷰를 공개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본인은 물론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비선에 대해서 알아보다 들켜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문제를 보도하겠다고 하자 박관천 전 행정관은 정윤희 등 비선 문제를 밝히면 '골'로 간다고 증언했다.

- 기자 : 우리가 비선 문제를 제기해보겠다.

박관천 : "세계일보가 만약 정윤희 등 비선 문제를 쓰면 곧바로 '골'로 간다. 정(윤희)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에 대한 것은 소도(삼한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성역이었음)이다, 소도 정(윤희)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청와대 전체와 싸우게 된다."

- 기자 :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박 : "정(윤희)을 이야기하다가 무사한 사람이 있느냐. 조응천(공직기강비서관) 날아갔죠, (남재준) 국정원장(이재수) 기무사령관도 날아갔다. 내가 알기로는 삼성 정보팀도 정(윤희)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입도 뺏기지 않고 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비선 관련 내용은) 보고만 하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다더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해제됐다. 벼랑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기자 : 그래도 보도해 보겠다. (잔여 임기) 3년만 버티면 되지 않겠는가.

박 : "아이고 의미 없다. 기자 생활에서 최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 (보도가 채) 끝나기 전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3년은 검찰청에 불러다닐 거요. 조(응천)도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않느냐. 나도 웬만하면 추위를 안타는데 추위를 타고 있다." 세계일보 골로 갈 뻔했지. 실제로.

### 촛불의 다음 타깃

## 중앙일보 뇌물죄 자백했는데도 무죄?

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죄를 무죄 판결한데 대해 비판이 거세다. 공판에서 김정주 대표는 "언젠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도움 받을 것을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뇌물 공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직 고위 법관은 "이 논리대로면 검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부서나 사건이 아닌 일과 관련해선 돈을 받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다.

## 경향신문 우병우·홍만표·최윤수의 고리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법조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은 구체적인 상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될 때 당시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났다. 또한 정운호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바로 다음날 새벽 2시쯤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일정과 내부 상황을 정운호 전 대표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가 최윤수 전 차장검사와의 만남을 통해 내사 중인 사건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향신문 보도, 최윤수, 우병우 라인이다.

### 오늘의 칼럼

## 한겨레 “광장중독”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의 “광장중독”, 김용민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이다.

“어쩌다 보니 개근을 했다. 10월 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고, 커져서 횃불이 되더니, 다시 온 나라에 들불로 번지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엔 폭죽으로 변해 밤하늘을 수놓았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참여했다.

광장의 촛불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끝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난 그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번졌던 프랑스 68혁명의 구호처럼 “상상력에 권력을” 부여해 ‘박근혜 퇴진’이나 ‘정권교체’ 너머 그 이상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 꿈은 일곱 빛깔 무지개보다 훨씬 다채롭기를, 그래서 그 꿈의 총합이 검정이 아니라 눈부신 빛으로 수렴되기를 희망한다. 그 꿈은 시험 없는 학교일 수도 있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고 맘 놓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어떤 노동과 놀이를 할 때 뿌듯하고 행복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회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 100만 원 정도 기꺼이 주는 나라의 저녁이 있는 삶이나 주30시간 노동일 수도 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과하게 꾸미거나 뜯어고치지 않아도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존중받는 세상일 수도 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외국 친구에게 얼굴 화끈거리지 않고 나라 이름을 댈 수 있는 나라일지도….

그런 꿈을 꾸는 공간이 꼭 실제 광장일 필요는 없다. 무겁게 짓누르고 옥죄던 억압에서 벗어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을 가슴속에 하나씩 품는다면, 그리고 그 광장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촛불 하나 켜둔다면. 울겨울, 우리는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칼럼이다.



**촛불이 이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매일 저녁 7시 |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부근)

※ 집회 후 청운동 방면(청와대 앞 2백미터)으로 행진합니다.  
※ 토요일에는 집중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